

예배의 성서 신학적인 의의

-이사야서 6:1-8 을 중심으로-

한 증 식*

I. 머리말

성서 신학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람에게 밝히 드러내 보여 주는 것이다.¹⁾ 그래서 일찌기 예배 신학자 Franklin Segler는 신학이 없는 예배는 예배다운 예배가 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²⁾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자들이 이해하는 신학적인 관심에 따라 예배의 성격과 예배의 생동감이 좌우된다는 뜻이다. 즉, 신학은 예배의 생명이나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신학적으로 건전해야 한다.³⁾ 그래서 John R. W. Stott는 오늘날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의 빈곤은 우리들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빈곤을 반영하며, 또 이것은 우리들의 성서에 대한 지식의 빈곤을 반영한다고 아주 적절하게 말했다.⁴⁾

예배에 대한 성서신학적인 이해를 돕는 성구는 이사야서 6:1-8 과 누가복음 24:13-35를 꼽을 수 있다.⁵⁾ 우리는 이 논문에서 이사야서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다.

이사야의 비전(6:1-8)은 우리에게 예배의 대상(하나님), 예배자(우리자신), 그리고 예배자의 예배에 대한 응답(선교)을 잘 말해 주고 있다.

* 본교 인문대학 교수·교목

1) Alfred L. Murray, *Psychology for Christian Teachers* (Grand Rapids : Zondervan, 1963), p.6.

2) See Franklin Segler, *A Theology of Church and Ministry* (Nashville : Broadman, 1960), ch. 4.

3) Louis W. Bloede, *The Effective Pastor* (Minneapolis : Fortress Press, 1996), pp. 62, 101 ; 정장복, 「예배학 개론」 (서울 : 종로서적, 1985), pp.12-17.

4) David Wells, "Guardian of God's Word", *Christianity Today* (September 16, 1996), p.56.

5) Bloede, *op. cit.*, pp.99-100.

II. 몸말

A. 예배의 정의

영어로 예배란 낱말인 worship은 고대 앵글로 색슨의 weorthscape (worth-ship)에서 유래되었다.⁶⁾ 즉, 예배란 모든 가치를 하나님에게 귀속시키는 행위이다.⁷⁾

William Temple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예배자가 어떻게 변화받고 어떤 결단의 행위를 하는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접촉하므로 양심이 되살아 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에 의하여 마음이 운택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의하여 상상력 이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의지를 바치게 되는 행위이다.⁸⁾

B. 예배의 내용

이사야의 비전은 기독교 예배의 동기와 개요를 소개한다. 그의 체험은 예배에서 우리들이 상징적으로 세 방향을 바라 보아야 할 것을 암시한다 : 위를 바라봄(upward look), 안을 바라봄(inward look), 그리고 밖을 바라봄(outward look)이다.⁹⁾

1. 위를 바라봄 : 예배의 대상 - 하나님

이사야의 비전에서 그는 먼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다(1절).¹⁰⁾ 스랍들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노래하였다(3절). 우리가 예배를 체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한다. 상징적인 위를 바라봄에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예배드

6) Joseph T. Shipley, *Dictionary of Word Origins* (Ames : Littlefield, Adams & Co., 1955), p.393.

7) 韓重植, 「基督敎의 理解」(서울: 숭실대학교 출판부, 1989), p.33.

8) Quoted in Richard J. Foster, *Celebration of Discipline* (San Francisco : Harper Collins, 1988), p.158.

9) Bloede, *op. cit.*, p.99.

10) 이사야가 불가시적인 하나님을 뵈었다고 하는 뜻을, R. A. Torrey, *What the Bible Teaches*, (New York : Fleming H. Revell, 1898), p. 15, 는 사람이 거울로 자기의 얼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과 비교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의 얼굴을 보았다’고도 할 수 있고, 또 ‘자기의 얼굴을 결코 보지 못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사야도 하나님의 영광의 반영만 보았다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다.

리러 왔음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인정하게 된다. 이때에 우리의 반응은 경배와 찬양이다.¹¹⁾

세번씩이나 “거룩하다”고 말한 것(trisagion)을 모든 시대의 거의 모든 주석가들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풀이한다.¹²⁾ 물론, 구약시대에 살던 유대인들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온전히 이해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이고, 저들은 단지 하나님의 ‘삼중의 거룩’이나 복수형(plural form)의 하나님을, 현대의 학자들이 풀이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의 권위나 위엄을 나타내는 ‘위엄의 복수’(plural majesty),¹³⁾ pluralis majesticus¹⁴⁾ 혹은 pluralis excellentiae¹⁵⁾로 이해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신약의 보다 충분한 계시의 표현에 적용시켜 볼 때, 이 ‘삼중의 거룩’은 삼위일체의 교리를 뜻하였을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Barnes의 말처럼, 스랍들이 저들의 찬양에서 이 교리를 위한 주초석을 놓았다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¹⁶⁾

a. 성부 하나님 - 예배를 받으시는 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서 비롯되는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이해하여야 한다.

Charles Hodge¹⁷⁾가 인간의 필치로 기록한 가운데서는 하나님에 관한 가장 훌륭한 정의라고 극찬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은 하나님을 다음과 같은 말로 소개한다 :

하나님은 그 존재에 있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영으로서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한심과 진리이시다.¹⁸⁾

Millard J. Erickson은 이를 하나님의 위대성(greatness)의 속성과 하나님의 선하심(goodness)의

11) *Ibid.*

12) Trisagion이 삼위일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던 John Martin도 이사야서 6:8에선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뜻한다고 한다. 존 A. 마틴(저), 김동건(역), 「이사야」 : 두란노 강해 주석 시리즈 13 (서울: 두란노서원, 1988), pp. 44, 48.

13) 한중식, *op. cit.*, p.184.

14) Augustus Hopkins Strong, *Systematics Theology* (Valley Forge : Judson Press, 1907), p.318.

15) Albert Barnes, *Notes o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1978), Vol. I, p.142.

16) *Ibid.*, p.140.

17) Charles Hodge,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 Eerdmans, 1946).

18)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교육부편,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 (서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교육부, 1971, 1979 수정11판), p.59를 보라.

속성으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¹⁹⁾

이사야의 비전에서 쓰인 ‘거룩함하다’(קדש)란 히브리 낱말은 ‘구별된’(different)이란 뜻이고,²⁰⁾ 이 말은 ‘자른다’ 혹은 ‘분리한다’는 뜻을 의미하는 동사에서 유래 되었다. 그러므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거룩함의 수월성 최상급을 뜻하며, 그는 모든 피조물과 전적으로 구별됨을 의미한다.²¹⁾

이같은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로서,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초월의 함축적인 의미들을 살펴볼 수 있다.²²⁾

첫째, 사람보다 더 높은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은 인간의 개념으로는 결코 완전히 이해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이다.

셋째,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이다.

넷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언제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예배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아주 적절한 것이다.

여섯째,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참된 초월적인 활동을 찾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뵈었을 때 그가 가지는 감정은 가까이 할 수 없는 절대타자에 대한 두려움과 놀라운 감정이었다. 이것은 Frederic W. Faber가 말한 바 ‘경악하여 일으키는 숭배심’²³⁾ 혹은 Rudolf Otto가 ‘누미노제’(das Numinose : mysterium tremendum)라고 일컬었던 느낌으로써,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떨리게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람의 마음을 매혹시키는 구실을 한다.²⁴⁾

b. 성자 하나님 - 예배를 중재하시는 분

초월적인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을 연결하는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기능은 「중보자」(Mediator)²⁵⁾

19) 밀라드 J. 에릭슨(저), 신경수(역), 「복음주의 조직신학」(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5), 상권 : 서론·신론, pp. 297-340을 보라.

20) William Barclay, *Ethics in a Permissive Society* (London : Fontana Books, 1972), p.17 ; *The Mind of Jesus* (London : SCM Press, 1960), p.106.

21) Matthew Henry, *Commentary on the Whole Bible* (Old Tappan : Fleming H. Revell, n.d.), p.39 : "The superlative excellency of God's holiness, above that of the purest creatures."

22) 에릭슨, *op. cit.*, pp.360-1.

23) A. W. 토저(저), 엄성욱(역), 「이러한 예배라야...」(서울: 은성, 1993), p.33.

24) Rudolf Otto, *The Idea of the Holy*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1958), pp.12-42.

25) Emil Brunner, *The Mediator* (London : Lutterworth Press, 1934).

와 「하나님이며 인간이신 예수」(Jesus-God and Man)²⁶⁾에 잘 나타나 있다. 예수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언어이며, 예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삶을 이 땅 위에서 사신 분이다.²⁷⁾

이처럼 인간의 대속 사업을 위하여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야만 하는 당위성을 지니게 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가르침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뜻을 함축하고 있다.²⁸⁾

첫째,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니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요 14:9)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둘째, 인간을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려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분은 다른 사람이 아닌 사람의 몸을 입은 하나님 자신이기에,²⁹⁾ 우리의 구원은 유효하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통하여,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인간은 재연합되었다.³⁰⁾ 하나님 스스로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틈을 건드렸다.

넷째,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배는 타당하다.

우리는 이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인간이시라는 가르침이 담고 있는 진리도 함께 기억하여야 한다.³¹⁾

첫째, 우리와 공감할 수 있는 예수의 속죄적 죽음이 참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둘째, 예수는 모든 것을 체험하셨기 때문에(히 4:15), 그는 우리를 위해 중재하실 수 있으시다.

셋째, 우리의 인격은 불완전하지만 예수의 인성은 완전한 본성을 드러낸다.

넷째,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분(요 1:14)이시기에, 우리의 모범이 될 수 있으시다.

다섯째, 예수께서 완전한 인간 본성을 취하셨다는 사실은,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여섯째, 인간의 몸을 입은 하나님 예수께서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인간처럼 우리 가운데 실제로 사셨다면(요 1:14), 그는 오늘도 인간 영역 안에서 활동하신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으로, 하나

26) Wolfhart Pannenberg, *Jesus-God and Man* (Philadelphia : Westminster Press, 1968).

27) Philip Yancey, *Where Is God When It Hurts* (Grand Rapids : Zondervan, 1977), p.107.

28) 에릭슨(저), 현재규(역), *op. cit.*, 중 : 인간론 · 기독교론, p.291.

29) Jürgen Moltmann, *The Crucified God : The Cross of Christ as the Foundation and Criticism of Christian Theology* (New York : Harper & Row, 1974), pp.201-2.

30)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의 결과에서 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의 지배에서 구해 주셨다. Foster, *op. cit.*, p.165.

31) 에릭슨, *op. cit.*, pp.310-11.

님은 전적으로 초월적이지만은 않으시다는 것을 보여준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은 하나님으로(요 1:1), 이 땅 위에서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으며(요일 3:5), 세상 죄를 위하여 돌아 가셨다(롬 3:24-26). 성자 예수를 아는 것이 성부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이고 길이다.³²⁾ 그러므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온 역사와 영원의 중심이 되는 인물이며, 그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다.³³⁾

c. 성령 하나님 - 예배를 도우시는 분

이사야는 그의 비전 중에서 그리스도의 다른 자아(alter ego),³⁴⁾ 성령 하나님을 뵈었다. 성서는 한결같이 그의 하나님 되심을 가르친다. 성령에 대한 다양한 언급들이 하나님에 대한 언급들과 상호교환 될 수 있다(행 5:3-4; 고전 3:16-17; 6:19-20). 그 중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그의 전지(고전 2:10-11; 요 16:13), 영원성(히 9:14; 1:10-12), 창조사역과 섭리사역(창 1:2; 욥 26:13; 시 104:30), 그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동등됨(마 28:19; 고후 13:13; 12:4-6; 벧전 1:2)이다.³⁵⁾

그러면 성령 하나님에 관한 가르침이 담고 있는 뜻은 무엇인가?³⁶⁾

첫째, 성령은 막연한 힘이 아니라 인격이시다. 따라서 우리는 그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며, 그에게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드려야 하는 분이다.

둘째,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과 같은 예배를 받으셔야 한다.³⁷⁾

셋째,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하나이시다. 그의 사역은 그들 세 위격들이 함께 계획한 일을 나타내시고 실행하는 것이다. 그들의 위격들과 활동들 사이에는 아무런 긴장이 없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은 모든 면에서 동일하시다. 그러나 세 하나님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 분이 완전히 한분이 된다는 가르침이 삼위일체의 교리이다.³⁸⁾

넷째,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시지 않다는 사실이다. 성령 안에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가까이,

32) Ron Boehme, *Leadership for the 21st Century* (Seattle : Frontline Communications, 1989), p. 42.

33) *Ibid.*, p. 43.

34) Strong, *op. cit.*, p.311.

35) 에릭슨(저), 신경수(역), *op. cit.*, 하: 구원론·교회론·종말론, pp.30-33.

36) *Ibid.*, pp.36-7.

37) David Tracey, *Blessed Rage for Order* (New York : Seabury Press, 1975), ch. 4 ; James Empereur, *Worship* (Washington, D.C. : The Pastoral Press, 1987), pp. 130-2.

38) 한중식, *op. cit.*, p.185를 보라.

실제로 각 신자들 삶 속에 들어오실만큼 가까이 오신다. 그는 성육신하셨을 때 보다는 지금 우리들과 더욱 친밀하시다. 성령의 활동을 통하여, 그는 진실로 임마누엘(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되셨다.

2. 안을 바라 봄 : 예배자

이사야는 위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바라 보았고, 이어서 자기의 속사람 즉, 안을 들여다 보며 이렇게 외쳤다: “그 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이라”(5절).

이사야는 하나님을 뵈기 전에는 두려움 없이 백성들에게 입할 화를 전하였었다. 그런데 하나님을 뵈은 후 그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고 도리어 그 자신의 부족을 고백하기에 이르렀다.³⁹⁾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거룩함의 비전은 이사야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의 영광을 보았을 때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사실이다(기드온, 사 6:22; 마노아, 사 13:22; 요한, 계 1:17). 하나님의 거룩함과 나란히 놓고 볼 때 인간의 죄로 인한 부정함은 더욱 더 분명해 질 수밖에 없다.⁴⁰⁾ Blaise Pascal의 말은 영원한 진리이다: “우리들의 비참함에 대한 지식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교만을 창출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우리들의 비참함에 대한 지식은 절망을 창출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온전한 중도(中道)이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들의 비참함을 발견하기 때문이다.”⁴¹⁾

이사야는 그의 조국에 화가 미칠 것을 선포해 왔었으나, 이제는 자기 자신도 역시 심판의 대상이 되었음을 인식하기에 이르러 죄지는 자기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 하기에 이르렀다.⁴²⁾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뜨겁게 고백하며 회개하는 이사야에게 불과 같이 뜨거운 속죄의 은혜가 임하였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거하였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6, 7절). 그러므로 이 불은, Matthew Henry의 표현처럼, 상하게 하는(hurt) 불이 아니라, 치유하는(heal) 불이고, 마비시키는(cauterize) 불이 아니라, 정화하는(cleanse) 불이다. 이처럼 이 불은 정화(cleanse)와 위로(comfort)의 불이었다.⁴³⁾ 스랍의 상징적인

39) Bloede, *op. cit.*, p.99.

40) Foster, *op. cit.*, p. 160 : “To understand his grace is to understand our guilt.”

41) Blaise Pascal, *Pensées*, quoted in “Reflections”, *Christianity Today* (August 12, 1996), p.48.

42) 마틴, *op. cit.*, p.47.

43) Henry, *op. cit.*, p.41.

행동은 사실상 이사야의 죄와 악이 제거되는 사죄의 효과를 가져 왔으며, 그에게 사죄의 확신을 주었다.⁴⁴⁾ 이는 우리의 예배 중에 고백과 용서를 위한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⁴⁵⁾

3. 밖을 바라 봄 : 예배자의 응답 - 선교

죄로 떨며 두려워서 들처럼 굳어졌던 이사야가 사죄의 확신을 얻고, 드디어 밖을 바라보며 그의 사명을 깨달았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 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8절). 이 물음은 하나님 이 누가 갈지 몰라서 누군가가 자원하여 대답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깨끗함을 입은 이사야에게 봉사의 기회를 주시려는 물음이다.⁴⁶⁾ 이사야의 죄사함 받은 직접적인 결과는 그가 선교의 사명을 받게 되는 것이다.⁴⁷⁾ 그래서 그는 이제 자신있게 사명에 순종하게 된다.⁴⁸⁾

Augustine은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없이 우리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없이, 하나님은 [아무 것도] 하시지 않으실 것이다.”⁴⁹⁾ 이 말은 특히 선교에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선교는 우리의 발과 입이 없이, 하나님은 아무 것도 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 아래⁵⁰⁾ ‘보냄을 받은 자로서 섬기려고’⁵¹⁾ 한다.

예배가 하나님과 예배자의 수직적인 친교(vertical fellowship)라면, 교제는 예배자와 예배자 혹은 예배자와 다른 인간들과의 수평적인 친교(horizontal fellowship)로 확대되어야 한다.⁵²⁾ 그러므로 참 예배는 선포와 응답, 헌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기쁨으로 도우려는 의지가 포함된다.⁵³⁾

44) C. F. Keil and F. Delitzsch,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 Eerdmans, 1980), VII, pp. 196-7.

45) Bloede, *op cit.*, p.100.

46) 마틴, *op. cit.*, p.48.

47) Keil and Delitzsch, *op. cit.*, p.198.

48) Foster, *op. cit.*, p.173.

49) Quoted in Neal Pirolo, *Serving as Senders* (Waynesboro : Operation Mobilization Literature Ministry, 1991), p.94.

50) Cf. John R. W. Stott, *The Preacher's Portrait* (Grand Rapids : Eerdmans, 1961), pp.13-14.

51) Cf. 각주 49번에서 인용한 책의 제목과.

52) 한중식, *op. cit.*, pp.32-35.

53) Bloede, *op. cit.*, p.100.

III. 맺는 말

예배란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관계를 일컫는다. 그러나 이 만남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 만나 주시고 계시해 주심으로 성립되는 것이다. Robert Webber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예배는 근본적으로 위로부터의 행위이다. 무엇보다도, 예배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행위이다. 예배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 오셔서 보여 주신다..... 예배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선택(choice)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calling)이다.⁵⁴⁾

고로 예배는 하나님의 초청이 선행되고, 예배자는 지금까지의 모든 축복, 은혜, 보호에 대한 응답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된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그 분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자신들을 발견하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죄의 은총을 힘입어 겸손히 무릎을 꿇게 된다. 그리고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드려진다.

위대한 성서교사 Henrietta C. Mears⁵⁵⁾는 이사야의 비전을 다음과 같이 영어 C자 다섯 마디의 간략한 말로 요약했다 :

이 이사야의 체험은 모든 제자들의 체험이어야 한다. 이사야의 권능의 모든 비결은, 성전에서 본 이 비전, '내가 주님을 보았다'는 말씀에 담겨 있다.

확신(CONVICTION) -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탄식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느끼는 죄책감이 가져온 울부짖음이었다(사 6:5).

고백(CONFESSION) -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 상심하여 통회하는 마음은 주님 앞에 소중한 것이다(사 6:5).

정화(CLEANSING) -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고백을 드린 후, 스랍이 단에서 뜨거운 솥을 그의 입에 갖다 대어 정결케 하였다(사 6:7).

54) Robert Webber, "The Divine Action in Worship", *Worship Leader* (June/July 1992), Vol.1, No.3, p.7.

55) Wendy Murray Zoba, "The Grandmother of Us All." *Christianity Today* (September 16, 1996), pp. 44-6에서 Henrietta C. Mears를 the "mother of Sunday School", the "grandmother of modern evangelism"이라고 부른다.

헌신(CONSECRATION) -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사 6:8).

위임(COMMISSION) - '가라.' 하나님의 명령이다(사 6:9).⁵⁶⁾

이와같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worship)와 증언(witness)을 위하여 만날 때마다, 예배는 우리들 삶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들 삶의 핵심이 된다.⁵⁷⁾

56) Henrietta C. Mears, *What the Bible Is All About* (Glendale : G/L Publications, 1977), p.215.

57) Warren W. Wiersbe, *Being a Child of God* (Nashville : Thomas Nelson Publishers, 1996), p.81.